



☀️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당신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홈 스타트 가정방문형 육아 지원 자원봉사



어린 아이를 키우다 보면 누가 좀 도와주었으면 할 때가 있지요? 홈스타트는 이럴 때 서로 돕는 지원 활동입니다.

홈스타트에서는 미취학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를 키워본 경험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주1회 두시간 가량 방문하여, 마음을 공감하는 「경청」과 집안일과 육아를 함께하는 「협동」을 통하여 아이 키우느라 애쓰는 부모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때로는 함께 외출하여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맺어주기도 합니다. 1973년에 영국에서 시작된 이 방문 지원 활동은 세계 22개 국가로 확산되었으며, 일본에서는 현재 110여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 ♥️ 대상 : 6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 (일부 지역에서는 임신 중인 분도 이용 가능합니다.)
- ♥️ 이용은 무료입니다 (자원봉사자가 택에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함께 외출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 부담입니다.)
- ♥️ 방문 중에 알게 된 프라이버시 등은 개인정보로 신중하게 취급하고, 비밀을 엄수합니다.
- ♥️ 자원봉사자는 주1회 2시간 정도 방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는 여러분과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하게 됩니다.

- 아이와 함께 놀아줍니다.
- 육아에 대한 불안과 어려움을 들어줍니다.
- 함께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 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봅니다.
- 함께 외출 합니다.

※부모 대신 집안 일을 하거나 아이를 봐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 이용순서 >

- 1) 신청
- 2) 오거나이저의 방문 (코디네이터와 함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정합니다)
- 3) 자원봉사자의 소개 방문 (코디네이터가 담당 자원봉사자와 함께 방문합니다)
- 4) 자원봉사자의 방문 (1주일에 2시간씩 4회)
- 5) 모니터링 (코디네이터가 방문하여 방문활동을 돌아보고 필요할 경우 연장합니다)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 때

주변에 친구나 아는 사람이 없어 이야기 할 상대가 필요할 때

일본의 문화나 주변에 대해 잘 모를 때

연년생이나 쌍둥이어서 육아가 힘들 때